

SAMC | LAW REVISION

1. 서류제출 늦어도 FTA 특례법 상 가산세 면제 가능

관세청은 07. 05(수) 협정관세를 적용 받은 물품에 대하여 가산세 징수 시 FTA관세 특례법에 따라 징수하는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국의 수출자가 관세청장이 요구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한 경우,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가산세 면제신청서 서식에 FTA 가산세 면제 코드 및 정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UNI-PASS 제출 또는 서면제출로 가능하다.

[Read More](#)

2. 일시체납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시행

관세청은 관세를 포함한 국세의 일시 체납이 발생한 경우, 부가세 납부유예 취소를 유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시행 한다. 지금까지는 체납이 발생하면 완납하더라도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부가세 납부유예업체 지정을 취소하였으나, 일시체납은 과실 또는 착오로 납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체납 후 15일 이내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유예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Read More](#)

3. 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신고절차 마련

관세청은 국제무역에서 다국적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지사간에 실시하는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가격신고 절차와 운영방안 등을 규정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일(토)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금년 3월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잠정가격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 가격신고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무역적자국 호주와 아랍에미리트도 수출 통관속도 빨라진다

관세청은 7. 6.(목)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 및 중동 제2의 교역국인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와 각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MRA가 체결되면 양국으로 수출하는 AEO기업들에게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 시 우선 조치 등 다양한 MRA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361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Read More](#)

2. 中, 7월부터 전국 세관 통합 운영

KOTRA는 중국 해관총서가 6월 28일 2017년 제25호 공고를 통해 '전국 세관 통관 일체화 개혁'의 실시를 밝혔다고 7월 20일 전했다. KOTRA는 이번 세관 통합제도 시행으로 어떤 도시에서 통관절차를 받든지 통합된 양식 규격과 표준을 통해 동일한 통관절차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통관 후심사'가 가능해져 자율적인 세관신고와 수속 간편화, 원활한 통관제도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혁의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Read More](#)

3. 호주, 한국産 식품에 날카로운 잣대

KOTRA는 호주 검역청이 2011년 한국에서 수입한 식품 중 일부가 호주 식품안전기준에 어긋나 폐기하거나 한국으로 반송한 사례를 계기로 한국産 식품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호주 농수산부가 수입식품 검역과 관련해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증서의 유효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여 수입제한 품목을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호주 세관에서 제시하는 수입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수입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美, 한·미 FTA 개정 서한 보내 ... 일부 개정 가능성 높아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3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목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FTA는 재협상보다 일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한·미 FTA 협정문에 의거하여 우리가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가 개정 협상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ad More](#)

2. 관세청,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 개선

관세청은 10일부터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기업의 대한상공회의소로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업무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산지 판정은 FTA-PASS에서 하고,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접속하여 별도로 신청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FTA-PASS에서 판정·입력한 정보를 바로 상공회의소에 일괄 올려주기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Read More](#)

3. 한-중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성과 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중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전면시행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FTA 수출입 활용률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CO-PASS는 국가간 e-C/O 자료교환, 통계,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전년 대비 7.9%p 상승한 41.8%로 나타났다. 한-중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시행으로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FTA 활용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